



# 사랑의 집은 몇 평?



홍은희 /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는 매주 일요일 밤이 기다려진다. 그것도 저녁 6시30분이. 연인과 달콤한 만남이 약속돼 있어서도 아니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입맛을 당기는 음식이 식탁 가득 넘쳐날 것을 기대해서도 아니다. '러브 하우스'란 한 TV 프로그램 코너 때문이다.

물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사고 파는 모든 거래 행위에서도 그저 가격이 싸다거나 질만 우수하다고 해서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닌 것처럼 이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도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 프로그램'이 좋다. 넓고 불편한 집이 미술처럼 생활에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러브 하우스'를 못내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다.

부엌이랄 수도 없을 만큼 좁아터진 주방, 문도 달리지 않은 화장실, 낮은 담벼락 아래 수도꼭지에서 동생이 땅을 보는 동안 겨우 몸을 씻을 수 있는 집, 비가 새는 천장, 동장군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빈틈 투성이인 창문... 이런 집조차 다 제 집일 수도 없다.

그런 열악한 집에서 살면서도 한결같이 밝은 얼굴을 지닌 이들. 불치병 환자가 있거나 아이들끼리만 살아가는 등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한결 같이 '불행한' 사람들 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족의 사랑'으로 푹푹 뭉쳐 낡은 가옥이 주는 온갖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간다. 거기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미술. 건축가는 허름한 집의 몰골을 뼈대만 남기고 송두리째 바꿔버리거나 없던 방을 만들어내고, 사방이 벽인 공간에 세상과 만나는 창문과 향내

나는 화장실까지 탄생시킨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건축집단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이런 꿈결같은 새 집에서 가족들은 다짐한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집은 몇 평일까. 세계가족단체협회는 1사람당 필요한 최소공간은 16㎡(약5평)이라고 한다. 과연 이 이상이면 '사랑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소로우는 '숲속의 생활'이란 글 속에서 집이란 첫째로 욕신의 따뜻함을, 다음엔 사랑의 따뜻함을 구하는 장소라고 썼다. 그러기에 집은 건물이 아니라 안식처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소중한 의미를 잊어버린다. 더 넓은 집, 더 큰 방, 더 편리한 가전제품들, 더 화려한 가구... 세월과 더불어 끝없는 욕망의 산실로 집은 탈바꿈하며 안식보다는 부(富)의 척도로 변질돼 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참된 집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좁은 공간도 쓰임새에 따라 태평양처럼 넓을 수도 있음을 화면을 통해 들여다보며 내 주위를 둘러보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우리 집은 가족의 행복을 담기에 충분할만큼 안락한가를. PPR